

한정림 개인전에 부쳐

글.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한정림 작가의 개인전인 <잠에 숨겨진>은 작품의 세 가지 구성으로 구분되어 만들어진다. 그 중 작가의 꿈과 이전 작업 이미지와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던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작업 시리즈는 휘갈겨져 있는 글씨가 대부분인데, 한글로 적혀져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영어나 일본어로 적혀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고자 하다가 이내 포기하게 된다. 작가가 몇 년 전부터 잠에서 깨자마자 쪽지에 꿈을 기록한 이 작업들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관적이고 사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그의 작업은 소통 자체를 피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텍스트라는 일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꿈의 내용은 작가만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며 이와 연관된 이미지들은 지금까지 작가가 발표한 프로젝트에서 제작된 작품 이미지들이다. 작가는 꿈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욕망의 실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꿈과 현실의 상관관계를 이분화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구현된 이미지는 작가의 생활과 사고에 영향을 주게 되고 꿈 속 이미지 역시 작가의 작업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당연하게도 작가는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기서의 이미지와 꿈 간에는 작가의 순전한 주관에서 기인한 연결고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진 콜라주로 화면을 구성하는 작업 시리즈는 작가의 여러 가지 기억들이 파편화 되어 서로의 연관성을 찾으며 서로 다른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이 또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의 나열이다. 특정 사건과 이미지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작가는 관객에게 이 작업이 감각적 인식에 그치는 것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내러티브를 연상한다. 관객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만들어갈 수 있으면 한다는 이 작업은 마치 영화의 장면을 단편적으로 들여다보는 듯 하다.

드로잉 형식의 콜라주 작업 시리즈 또한 사적인 주관성을 강조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작가가 살고 있는 동네를 오가며 발견한 주점들에서는, 작가의 주관에 의하면, 아름다운 것들이 거래되고 있을 터이다. 벽지와 그 속에 그려진 장식적인 문양들이나 패턴들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저 이미지 자체로 각자의 취미를 구분하듯 나열되어 있다. 그 속에는 작가가 주변에서 보아온 환경들, 혹은 꿈속에서나 나올법한 묘한 이미지들이 마치 초상화처럼 액자마다 하나씩 차지하고 있다.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 중 프레임 역할을 하고 있는 무늬벽지는 인테리어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작가의 디자인적 성향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일본 유학 중 작가의 전공은 '디자인과의 구성조형'이었음을 상기시킨다. 한국에서는 학부 과정으로 조소과를 졸업하였는데 한정림 작가의 작업 성향이 장식적이면서도 설치적 성격이 강하여 이 두 가지 전공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듯 보인다.

작가는 현실과 꿈의 틈새에 위치하면서 일상의 이미지, 혹은 개인적 체험들과 그간의 꿈들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꿈을 꾸다는 것은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욕망을 구현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일수 있다는 작가의 이야기는 꿈 역시 작가의 현실의 일부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용해 온 작가의 오브제를 다루는 공통된 방법인 그물망(net)을 형성해 오며 상호 연결이 가능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를 통하여 가능해졌다. 이러한 장치가 사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리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오브제의 파편들, 이미지들의 조각들, 잠에서 깨어난 후 끄적거린 꿈의 군데 군데를 기억해낸 텍스트들 등은 상호 병렬, 결합, 변형 등을 통하여 구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강한 연결 고리가 이미지와 이미지 간의 배치 속에서 이들을 서로 얽히게 만들면서 모종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발견한 또는 사용하고 있는 오브제들을 소재로 사용하며 동시에 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키우던 앵무새의

행위에서 나온 결과물이 작품을 구성한다. 커피 맛을 즐기는 작가는 원두 커피를 내리고 난 후 얼룩진 필터를 모아서 꽃밭과 같은 이미지를 구성한다. 자신이 오갔던 구역의 교통 티켓을 모아서 패턴화 한다. 평소 착용하고 다녔던 액세서리, 장난감 등을 모아서 특정 오브제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연출하는 등 사실 작가의 결과물은 객관화된 실체로서가 아닌 또 하나의 주관적 미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왔다. 작가가 다루고 있는 일상의 오브제는 대부분 쓰고 난 것들이다. 쓰고 난 후 버려지고 쇠퇴해 가는 이 물건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17세기 유럽의 정물화의 한 형식인 '바니타스(VANITAS)'라는 장르에서 보여주는 시들어가고 썩어가는 덧없는 것들의 풍자적 묘사를 떠올리게 한다. 한때 미의 절정을 이루었던 모습이 아름다움의 마지막 단계가 아님을,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순간이든 주관적 미를 창출 할 수 있는 소재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세상을 바라보는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하여 바라보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작가의 작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미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흔한 오브제들은 인식 주체의 경험과 관념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작가의 경험을 공유 하지 못한 채 객관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작가는 자신의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이미지 속에서 관객 각자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기대한다. 그렇게 작가의 이야기의 단편만으로는 생소한 작가의 세계 속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대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